

DBpia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우도의 제재화 방향-불법을 구하는 인물담을 중심으로-

저자 (Authors)	신태수
출처 (Source)	어문학 , 1990.5, 95-110(16 pages) Eomunhak , 1990.5, 95-110(1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hankukeomunhakho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078
APA Style	신태수 (1990).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우도의 제재화 방향-불법을 구하는 인물담을 중심으로-. 어문학 , 95-11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1 10: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佛敎說話와 友道의 題材化 方向

—佛法을 구하는 人物譚을 中心으로—

辛 泰 洙

〈목 차〉	
I. 불교적 우도와 문학에서의 제재화	기능
II. 구법설화에 나타난 우도의 실연 양상	IV. 우도를 통해 본 일인의 현실 인식
III. 가치관의 대립과 우도의	V. 결 론

I. 불교적 우도와 문학에서의 제재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불법(佛法)을 구하는 인물담이 많이 실려 있다. 편찬자가 승려이니 불법을 구하는 인물담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인물담의 성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먼저 등장인물의 수를 보더라도 한 명이기도 하고, 두 명, 세 명, 그 이상이기도 하다. 한 명을 다룬 설화는 내용이 단순한 것이 보통이고 두 명 이상을 다룬 설화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대립적인 성향이 담겨 있는 편이다. 설화의 편수로는 한 명보다 두 명 이상이 등장하는 경우가 단연 앞진다.

서사문학에서 등장인물이 한 명보다 두 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새삼스럽게 논할 것이 없을 듯하나 불교설화를 대상으로 할 때는 특히 주의할 기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두 명 이상 등장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을 구하자면 험란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혼자서는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설기 어렵고 도반(道伴)을 형성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동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승가(僧伽)가 생겨났고,⁽¹⁾ 승가를 삼보(三寶)의 하나로 삼아 중시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승가라는 무리들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은 우도의 실천이다. 석가가

(1) 金鵬應, 「佛敎學大辭典」(弘法院, 1988), 900쪽.

「잡아함경」(雜阿含經)을 통해 우도설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도를 승가의 실천윤리로 제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석가는 혼자서 성불했지만 자신이 깨달은 심오한 진리를 이전에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다섯 사람들에게 펴 보였고, 이들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출가수행자들과 재가신도들에게 우도설법을 했다.

아난다여! 순수하고 원만하며 깨끗하고 맑은 범행은 선지식, 확한 동무, 확한 을 따르는 것이요, 악지식, 나쁜 동무, 나쁜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이 도의 전부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²⁾

아난다가 좋은 벗을 가지고 있다면 불도를 절반 이상 이룬 것과 같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석가는 이를 부인하고 도를 전부 이룬 것과 같다고 했다. 절반 이상이라고 한 아난다도 우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인데, 석가가 이에 긍정하지 않은 것은 우도를 최상의 위치에 두고자 함이다. 우도가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널리 불도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절도 있다. 석가시대의 인도는 몇 개의 고대도시가 성립되었고 지배질서의 확립을 꾀하고자 계급제도가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도(傳道)사업을 펼치자면 이질적 구성원 간에 조화와 융합이 무엇보다 요청되었다. 그러자니 형식과 차별을 깨뜨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석가는 상층신분인 사리뿔타나 천빈출신인 스니타나 우둔하기 이를 데 없는 판타카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좋은 벗이라고 천명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³⁾은 구체적인 실천사태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완전히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석가 그 자신도 벗의 일원임을 전제로 했던 것이다.

벗과 나와 의 관계설정 은 나만이 이 세상에 실존한다는 미망(迷妄)을 없애는 길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을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영원하다고 믿는 미망에 다름 아닌데,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벗과 나의 관계는 소중하다. 석가는 미망을 없애는 방안으로 친할 만한 네 종류의 벗을 제시한다. 첫째, 남의 허물을 고쳐 주는 것이요, 둘째,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이요, 셋째,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넷째, 일을 함께 하는 것⁽⁴⁾이니, 벗과의 우정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석가의 설법이 철저히 공리성에 입각해 있는 듯하나 우도의 실천으로

(2) 「雜阿含經」卷 27, 善知識經. “當知阿難 純--滿淨 梵行清白 謂善知識 善伴樂 善隨從 非惡知識 非惡伴樂 非惡隨從”

(3) 增谷文雄, 「佛敎概論」, 李元燮 옮김, (玄岩社, 1971), 80쪽.

(4) 「長阿含經」卷 11, 善生經. “一者止非 二者慈愍 三者利人 四者同事”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아질 수 있다는 언급을 엄두에 들 때 벗과의 관계 설정은 참다운 나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공리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기도 한 셈이다. 그런데 석가는 뛰어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래하고, 춤 추는 친구는 원수라고 못박았다. 좋은 벗과 나쁜 벗을 내뱉시킴으로써 우도는 기호에 따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업임을 권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전에 제시된 우도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수행자들의 실천적인 요목으로 자리잡았고, 여러 전적을 통해 그 중요성이 거듭 개진되었다. 중국에서 한역된 여러 경전과 고승들의 행적을 담은 양(梁), 당(唐), 송(宋)의 고승전(高僧傳)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일련의 고승전과 선사어록 등에 이런 자취가 역력하다. 신라의 증인 안함(安含)은 혜숙(慧宿)과 도반을 이루어 여러 곳을 주유했으며,⁽⁵⁾ 지눌(知訥)도 불학 10여 인과 더불어 명애와 이익을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 동사(同社)를 만들고 선경을 익히며 지혜답기에 힘썼다는 것⁽⁶⁾은 그 사소한 예이고, 고승의 행적을 담은 글이라던 어디서나 우도를 실천한 사실이 나타난다. 석가가 제시한 “친할 만한 벗” 중에서 주로 벗채번인 일을 함께 하는 데 촛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자 자신의 도를 닦되 서로를 격려하고, 고난을 당할 때 공동으로 대처할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다.

석가가 “친할 만한 벗”이라고 할 때는 나가 벗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벗이 나를 선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나가 벗을 선택하고 벗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로 기록될 뿐 벗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존재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행 목표를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나눌 수 있다면, 벗과 나의 관계를 우도로 제시한 석가의 입장은 분명히 둘을 겸하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구보리지만, 또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므로 하화중생은 필수적이다. 어느 것 전후 없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가의 선택인데도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상구보리 쪽에 치중해 있다. 실제적으로 인물이 그러했다기보다는 글의 형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현전하는 자료가 대부분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전(傳)인 점으로 보아 상구보리를 용미거리로 수용할 뿐 그 이상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화중생의 차원을 장황하게 기

(5) 覺訓, 『海東高僧傳』(乙酉文化社, 1975), 173쪽, “與高僧惠宿爲伴”

(6) 知訥, 『普照國師法語』(同和出版社, 1973), 415쪽, “一日同學十餘人約曰 罷會後當捨名利 隱遁山林 結爲同社 常爲習定均慧爲務”

술하게 되면 인물의 입전(立傳)이라는 본래의 목포를 벗어나서 교리를 설명하는 전도서로 변질될 것이라는 창작자의 우려가 작용했을 법하다. 그래서 입전하려는 인물 외에는 소략하게 다루었고 두 명 이상의 인물을 대등하게 다루더라도 동일한 신분, 비슷한 성향을 지닌 인물끼리 결연시켜 번잡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이런 종류의 설화 또한 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이면서 한 인물만을 다루기보다는 두 명 이상의 관계를 다룬 것이 많고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조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끼리 결연되어 있어 단순히 인물의 행적을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도가 깔린 듯하다. 이런 현상은 두 명을 다룬 인물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한 명, 세 명, 그 이상의 인물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 사람 간에 우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석가의 설법이 어떻게 재해석되어 있는가를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불법을 구하는 인물담을 구법설화(求法說話)라 지칭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 중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 다섯 편을 주된 자료로 삼아 논의를 펴고자 한다. 해당 자료를 「삼국유사」에 실린 순서대로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恒怛朴朴, 塔像第四
- 2) 義湘傳教, 義解 第五
- 3) 郁面婢念佛西昇, 感通 第七
- 4) 廣德 嚴莊, 感通 第七
- 5) 包山二聖, 避隱 第八

II. 구법설화에 나타난 우도의 실현 양상

승가에서는 수행 능력이나 목적에 따라 도반을 이룬다. 득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반을 이루는 만큼 능력의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는 맺어질 수가 없고, 이런데도 도반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능력에 의한 편이상 구별일 뿐 신분에 의한 차등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삼국유사」의 구법설화에서는 도반이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능력에 대한 고려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 1) 부득(夫得)은 회진암에 사니 혹은 양사라고도 했고, 박박(朴朴)은 유리광사에 살았다. 모두 처자를 메리고 와서 살며 산림을 경영하고 서로 내왕하며 마음을 탐아서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 (夫得鶴懷真隱 一云拔寺 朴朴

居瑠璃光寺 皆挈妻子而居 經營產業 交相來往 棲神安養 方外之志 未常暫廢)

- 2) 법사 의상(義湘)은……중국으로 가서 법화를 보고자 하더니 다짐내 원효(元曉)와 함께 길을 떠나 요동으로 갔다. 변경의 고구려 첩자에게 잡히었다 수 10일만에 돌아왔다. (法師義湘……未幾西國觀化 遂與元曉道 出遼東邊 戍邏之爲 謀者 囚閉者累旬 僅免而還)
- 3) 아간 귀진(貫珍)의 집에 옥면(郁面)이라는 한 계집종이 있어 그 주인을 따라 절에 와서 풀 가운데 선 채 종을 따라 염불했다. (時有阿干貫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婦寺 立中庭 隨僧念佛)
- 4) 문무왕대에 사문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란 두 사람이 서로 진하여 합났으므로 약속하되 먼저 극락으로 가는 자는 모를지기 알리지 않고 했다. 광덕은 문왕사 서쪽 다울에 은거하여 신 삼는 것을 업으로 하며 치자를 데리고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살며 나무를 베어 화전을 했다.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 嚴莊二人 友善日夕約曰 先歸安養者須告之 德隱居芬皇西里 浦莊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 大槓力耕)
- 5) 관기(觀機)와 도성(道成) 두 성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함께 포산에 은거하여 관기는 남쪽 고개에 암자를 짓고 도성은 북쪽 구덩이에 거처 했는데 거리는 10리 가량이었다. (羅時有觀機道成二聖師 不知何許人 同隱包山 機庵南嶺 成處北穴 相去十許里)

제시된 자료 순으로 도반이 이루어지는 대목을 인용해 보았다. 1)에서 부득과 박막은 산림을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므로 하층인이라 할 수 있고, 2)에서 원효와 의상은 육두품과 진골출신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상층인으로 보아도 좋겠고, 3)에서 주인인 귀진은 아간이니 상층인, 비녀인 옥면은 하층인 중에서도 천인에 속하고, 4)에서 광덕이 신을 삼고 엄장이 화전을 업으로 했으니 모두 하층인이겠고, 5)에서는 두 인물의 내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세상이 깊어 산 속에 들어와서 나뭇잎을 옷으로 삼고 한서를 겪는다는 언급으로 보아 신분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현실에 불만을 느낀 하층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2)는 상층인과 상층인, 1), 4), 5)는 하층인과 하층인, 3)은 상층인과 하층인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구법설화에 는 신분을 암시하는 대목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그 외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절을 근거로 할 때,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신분이라 하겠다.

신분에 따라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우경의 방향도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신분은 제도상 세습되고 고정적이며 다른 신분으로의 이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징표로 한다.⁷⁾ 따라서 신분

(7) 이기백, “삼국시대의 사회구조와 신분제도”, 『韓國古代史論』(한길사, 1988), 153쪽.

이 비슷하고 처로가 유용할 때는 교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정이 존재하기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상층인과 하층인의 경우 설사 유용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상층인은 하층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마련이므로 원만해지기가 더욱 어렵다. 신분면에 있어서는 상하간에 대등한 우정을 기대할 수 없지만 계층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길이 열려 있기도 하다. 계층이라는 말은 대체로 경제적·사회적 위치에 따라 준별할 때 쓰이는 데, 국가적으로 큰 업적을 쌓으면 신분은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계층은 상승할 수가 있다.⁽⁸⁾ 원효가 의상에 비해 신분이 떨어지게 낮아지면서도 상층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승려로서 그 위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신분이 낮은 편이지만 계층적으로 높아진 원효를 의상과 같은 상층인으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원효와 의상은 구법을 위해 두 번씩이나 중국으로 동행했다. 먼 길을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갔으니 두 사람이 매우 가까웠을 것인데, 후세인들은 그들을 형제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다. 삼막사 사적(三幕寺事蹟)에는 “진라 때 원효라는 학불자가 그 아우 의상과 더불어 모옥을 짓고 불법을 닦았다”고 했고, 수타사 사적(水陞寺事蹟)에는 두 아들을 낳았으니 형은 원효요 아우는 의상”이라고 했던 것이다.⁽⁹⁾ 그런데 본 설화에서는 같이 다닌 사실만을 강조할 뿐 서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우정을 주고 받았는지 자세히 않다. 의상을 다루는 데서는 종남산(終南山) 지엄(智嚴)의 수제자가 되어 도통을 이었고 국내로 돌아와 화엄종을 열었다고 하면서도 원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효를 다루는 데서는 무애가(無畏歌)를 부르며 민중불교를 심어가는 모습을 제시하면서도 또한 의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각자 하는 바가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모두 승고한 인물로 그려져 있으니 그 나름대로가 다 중요하다. 상층인과 상층인의 관계는 우정이 돈독하면서도 우정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하층인과 하층인을 다룬 설화는 제목에서부터 암시하는 바가 크다. 신분이 낮은 계도 불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남백월이성(南白月二聖), 포산이성(包山二聖)으로 지칭하고 있으니 하층인이라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덕 업장”에서 이와 같이 칭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부처가 된 사람들이기에 그들 또한 성인으로 인식되었을 터이다.

(8) 劉承源, 「朝鮮初期身分制研究」(乙酉文化社, 1987), 11쪽 참조.

(9) 金煥泰, “說話를 통해 본 新羅 義湘”, 『佛敎學報』 18 (東國大 佛敎文化研究所, 1981), 17쪽 재인용.

세 뉘 설화의 인물들은 세상 밖에 놀러는 생각이 일치하여 친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부득과 박박이 도반을 이루어 입산한 동기는 속세에서 열킨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이고, 팽떡과 엄장, 판기와 도성의 경우 세상살이가 번잡하고 귀찮았기 때문이니 다소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세월의 무상함을 수심(修心)으로 극복하려 했다. 한결같이 세속에서의 우정이 산 속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경자 산 속에 들어와서는 양자 간에 틈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미련이 우도의 실현으로 해결되는 양상도 비슷하다. 하층인간의 우정은 때때로 대립적인 비속함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 때문에 오히려 우도의 실현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강하다.

그런데 후대에서는 이들을 두고 함께 성불했다는 쪽과 함께 죽었다는 쪽으로 시각이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편찬자가 일반적으로 성불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한 것은 나름테로의 의도가 있을 터이니 따져볼 만하다. 이런 태도를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판기와 도성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양자가 성불했다는 쪽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뿔산 높은 바위 위에 항상 고요히 앉아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서 몸이 솟구쳐 오르더니 전진이 공중에 날라가 간 바를 알지 못했다.”⁽¹⁰⁾는 함담을 근거로 하고, 단순히 사당했다는 쪽에서는 “수왕궁이라는 곳에서 죽었다”⁽¹¹⁾고 하여 주검을 근거로 내세운다. 성불했거나 사망했거나 간에 인간세계에서는 구별이 모호할 뿐이고 수식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당대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편찬자는 인근 마을사람들의 영험담을 들시에 절들이고 있다. 판기와 도성이 사라진 뒤 향나무가 밤에 등불처럼 빛을 발하여 대낮처럼 밝았다 한다. 두 성인의 신력이라 믿은 사람이 이튿날 인이 널었고 해마다 결사(結社)를 통해 봉안했다고 하니 양인이 터무니 없이 미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편찬자가 성불과 사망의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한 것은 수행자가 도를 이루었다고 해도 자기만으로 그쳐 버리면 사망이나 다름 마 없고 남에게 영감을 끼치면 성불인 점을 강조한 셈인데, 남에게 영감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이 우도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시에 보여 주었다.

상층인과 하층인의 관계는 신분의 차이로 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터인데, 상층인이 주인이고 하층인이 종이라면 그 가능성은 전무하다. 신분이 유별한 단란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 두 사람이 불도를 닦는다는 점에서 지향

(10) 一然, 「三國遺事」(廣寶出版社, 1980), 169쪽. “成於所居之後 高亮之上 常安坐 一日自窟縫間透身而出 全身騰空而逝 莫知所至”

(11) 一然, 같은 책. “或云至壽昌郡”

하는 목표는 같다. 그런데 엮을할 기회가 주인에게는, 무한정 주어져 있지만 종에게는 완전히 막혀 있다. 주인은 여느 상층인과 마찬가지로 종에게 하등의 자유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매일 곡식 두 절씩을 주면서 하루 저녁에 다 썰게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뜰 좌우에 긴 밭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대어 놓기에 이른다.⁽¹²⁾ 이런 처지에 놓이면서도 주인 손을 좌우로 흔들며 합당한 까닭은 볼도에 귀천이 없다는 확신에서 나왔을 법하다. 신분으로 인간을 대하는 주인과 갈등이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육면은 천장을 뚫고 승천해 버린다. 주인이 경악하는 순간 미망은 깨달음으로 바뀌고 육면이 승천한 집을 회상하여 절로 삼았으니 이로써 상하층의 우애가 이루어졌다. 상하층 간의 우정은 천한 종이 승고한 인물로 판명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여운은 강하게 남는다.

이렇게 보니 상층인과 상층인, 하층인과 하층인, 상층인과 하층인으로 이어질수록 우도의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우도의 양상은 배경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원효와 의상의 활동무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부득과 박박, 광덕과 엄장, 관기와 도성의 경우는 국내의 산 속이고 귀진과 육면의 경우에는 한 가정으로 나타난다. 배경이 넓을 때는 우도의 실현이 승고하기는 해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가 배경이 좁아질수록 승고함과 비속함이 뒤섞이기는 하나 서로가 의존적이고, 배경이 아주 좁아질 때는 승고함과 비속함이 병립할 수 없어 비속함이 사라져야만 승고함이 드러날 수 있었다. 승고함이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깔려 있으며, 비속함은 인물 간의 비립이 치열한 곳일수록 강하게 포출된다.

Ⅲ. 가치관의 대립과 우도의 기능

배경은 작품의 구성요소에 속하므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중인물이 우연히 시선을 던지게 되는 단순한 무대장치가 아니라 인물 사이의 관계를 강하게 암시한다면 배경이 실제의 풍경이든 아니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어떤 배경도 작가의 기법에 의한 산물이므로 자연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투사된 영상의 재현물이다.⁽¹³⁾ 구면설화에 서 배경이 넓고 좁음에 따라 인물끼리 대립하거나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 주

(12) 문맥으로 보아 郁面 스스로 긴 밭뚝을 세우고 새끼로 손바닥을 꿰뚫을 리가 없고 貨珍이 이런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 편이 좋다. 조동인,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승고하고 비속한 삶」, 『三國遺事研究』上(嶺南大出版部, 1983), 171쪽 참조.

(13) Roland Bourneuf, 『L'univers du roman』, 金華榮 編譯(文學思想社, 1986), 171쪽.

기에, 배경의 비뚤이 적지 않으며 인물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겠다. 배경을 통해 일련의 기법이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배경이 가장 넓게 제시되는 원효와 의상의 경우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신분이 어떠한든 승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할 터이나 신분에 따른 의식이 결코 같은 것은 아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고 의상은 진품 출신인 바 이런 신분적 차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한다. 원효는 두식하고 친한 사복(地福)이 어리의 상을 입고도 장례를 치르지 못할 때 거 들고 친구가 되어 주기도 했으며, 엄장이 광덕의 저에게 무지람을 듣고 갈 등에 빠지자 정관법(淨觀法)을 지어 지도하기도 했다. 특히 요석공주와의 결연은 그의 행적에 기인적인 면모를 더해 준다. 위엄을 차려야 할 승려가 친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인물이라면 행하기 어렵다. 불교는 계율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율조차도 규범화되어 나타난다면 사람을 얽어매는 형식이라 여겼기에 이런 형식을 과감히 깨뜨리고자 했던 것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유(有)가 아닌 것이 곧 무(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또 무가 아닌 것이 그대로 유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¹⁴⁾고 했다. 대극적인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온갖 대립을 한 덩어리로 녹이는 길만이 화정(和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원효가 대덕(大德)을 이룬 고승이므로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평가는 될 수 있어도 작증인물로서의 원효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사복이나 엄장과 같은 하층인과 가까이 하고 결혼까지 감행하는 장면이 현실의 쏠건이 순탄하지 못할 때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설정되었기에 승고하게 보인다. 이에 비해 의상은 본체와 현상이 차별이 있으면서 서로 융합한다는 화엄사상(華嚴思想)을 제창했다.⁽¹⁵⁾ 평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원효와 같을 듯하나 현상의 평등만 제시할 뿐 본체의 차별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선다.

이렇게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배경이 인물에게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다. 배경이 넓으면 인물이 부딪힐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았고, 기껏해야 신분에서 파생하는 대립을 가리는 효과밖에 없다. 배경이 인물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인물이 배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14) 元曉, “金剛三昧經論”, 『韓國의 佛敎思想』(三省出版社, 1981), 483쪽. “不有之法 不即住無 無之不相 不即住有”

(15) 安啓賢, 『韓國佛敎史研究』(同和出版公社, 1982), 79쪽.

이 나름대로 불교사상을 체계화했고 여러 곳을 편력한 고승이므로 작품으로 형상화될 때 넓은 공간이 필요적으로 요청된다. 인물이 배경의 넓이를 요하고 주어진 배경은 인물 간의 태립을 가리키는 해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배경보다 인물이 우위에 선다고 하겠다.

배경이 극내로 좁혀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모두 하층인이 등장하므로 신분적인 태립은 일어나지 않지만, 산을 끼고 상호 멀리 떨어져서 움막을 짓고는 먼저 득도하고자 노력한다. 부득은 동쪽에 박박은 북쪽에 암자를 지었고, 광덕은 서쪽에 엄장은 남쪽에 거처를 정했고, 판기는 남쪽에 도성은 북쪽에 은거했다. 방위상으로 다르고 산을 끼고 있으니 반대편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배경이 이렇게 되자 곧 경쟁적인 관계가 조성된다. 박박은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하는 여인을 물리치고는 그 여인이 부득의 처소로 갈 것이라고 추정하며 “오늘밤 부득이 그 여인으로 인해 파계하리라”⁽¹⁶⁾며 통쾌히 여기고, 엄장 또한 광덕이 열반하자 파자 그 아내를 취해서 바로 통정하기에 급급한다. 판기와 도성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상세하지는 않으나 남북으로 각각 갈라진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국면이 있었을 법하다.

인물들의 거처가 극내의 산 속이니 원효와 의상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도반끼리 때때로 만나기는 하나 경쟁적인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사실상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닫혀 있다. 원효나 의상이 자신만의 득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면 이들은 세상살이가 싫어서 산으로 들어왔던 만큼 일선의 드물 성취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다. 닫힌 공간을 열어젖혀자니 수행자라는 명분 때문에 곤란하고, 그대로 있자니 도반조차도 질시의 대상이 되는 판국이였다. 산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파움껏 구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건만 이들은 구태여 좁은 공간을 택해 도반에게서 새로운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공간을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자신들을 가두어 두는 꼴이 펴니 인물이 배경보다 열세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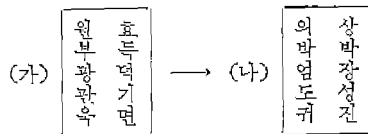
배경이 한 가정으로 축소될 때 두 인물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조차 생기지 않는다. 옥면은 친비이니 애초부터 주어진 공간이 있을 수 없다. 부득과 박박, 광덕과 엄장, 판기와 도성은 산 속에서 험소하기는 하나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비하면 옥면은 가이 절망적이다. 옥면이 최종적으로 희망을 건 곳은 절이었다. 인간 평등을 내세우는 절에서라면 실제적인 공간은 불가능하더라도 인식의 공간쯤은 가질 법도 하다. 그런데 이것마저 상

(16) 一然, 같은 책, 115쪽. “朴朴謂勝今夜必染戒”

천인 귀진에게 빼앗겨 버려자 옥면이 현실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천장을 뚫고 승천하면서 상전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무한정의 공간을 차지했지만 이승에서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옥면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현실에서 끝내 한 치의 공간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배경 때문이라고 할 만하다. 배경이 인물을 지배할 뿐 아니라 인물을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보니 배경과 인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배경보다 인물이 우위에 서기도 하고 열등한 위치에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배경이 인물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배경이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인물 간의 대립이 더약하고, 배경이 우위에 설 때는 인물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일어난다. 배경에 따라 대립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으니 인물과 배경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배경이 열등하기 때문에 인물이 상충이고 대립이 더약하다거나, 배경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인물이 하충이고 대립이 강하다고 여긴다면 일부분의 현상을 보고 전체를 속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상충 신분이든 하충 신분이든 인물과 인물이 끝내 대립으로만 치닫지 않기 때문이다. 대립을 용해시키는 촉매는 우도로 나타난다. 우도는 인물 간의 대립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는 바, 인물과 배경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우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관계이기에 오히려 소중하다.

이런 관점에서 인물과 배경의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면, 배경이 대립적으로 조성되어야만 인물 간에 우도가 작용할 수 있다. 원효의 의상이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부득, 광덕, 관기가 도반에게 수행방법을 전해주고, 옥면이 귀진을 크게 감화시킨 것은 모두가 대립을 조성한 배경 때문이었다. 배경의 대립적 조건이 인물들 압도할수록 우도는 그만큼 강하게 실현된다. 원효와 의상의 경우보다 대립적 조건이 강한 부득과 박박, 광덕과 엄장, 관기와 도성의 경우에서 우도가 더 선명하고 진실하게 실현되며, 이보다 한결 운 더 나아간 옥면과 귀진의 경우에는 우도의 실현이 절박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분 상하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우도가 실현된 자리에는 한결같이 화해와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도의 강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도의 실현 방향을 논할 수 있다. 우도의 실현 방향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쪽은 신분, 환경 등의 형식적 차원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나)쪽은 그렇지 못하다. 우도가 (가)쪽에서 (나)쪽으로 실현되면서 순수한 인간적 유대가 이루어지고 견성의 경지에 함께 나아간다. 그렇다고 (가)쪽이 대립 감정을 지니지 않은 채 (나)쪽을 일방적으로 이끈다고 여긴다면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가)는 형식을 깨뜨리는 쪽으로 (나)는 형식을 고수하는 쪽으로 세계관을 달리했으니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였다. 당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나)쪽이 현실의 모습과 가까웠을 것이고, (가)쪽은 차별과 형식이 난무하는 현실을 벗어날 새로운 움직임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와 (나)의 대립에서 왜 우도가 (가)쪽에서 (나)쪽으로 실현되는지는 등장인물로서 풀어내기 어렵고, (가)쪽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제시한 작가의 의식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랜대 우도의 실현으로 인해 도반 간에 뒤흔다던 대립이 한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화해를 전제로 한 대립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우도에 궁극적인 비중이 두어져 있다. 그런데 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배경과 인물이 대립적 관계를 가졌기에 가능했다. 배경과 인물이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었다면 우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었을 터이고, 작용한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았을 것이다. 구법설화의 배경에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이런 각도에서 풀어갈 수 있다. 배경이 강하게 나타나야만 인물과의 대립이 뚜렷해 질 수 있고 우도의 기능이 돋보일 수 있기에 당시의 경직된 현실을 곧 바로 배경으로 수용했을 법하다. 인물, 배경과 우도의 실현이라는 사건이 자기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짜여 있되 인물, 배경이 우도의 기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Ⅶ. 우도를 통해 본 일연의 현실 인식

우도의 실현 방향이 형식을 거부하는 쪽에서 형식을 고수하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되는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따져 보기로 한다. 구법설화에서 우도는 초월적 경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물과 배경이 대립 상태에 있으니 여기에 작용하는 우도도 단순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러나 우도가 초월적 경이를 동반하면서 구현되고 그 강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 경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노닐이 연대(燕臺)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어 빛을 내고 몸은 금빛으로 채색되었다. (見旆坐燕臺 作彌勒尊像 放光明 身體鎔金)
- 염장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운외에 천악(天樂) 소리가 나고 광명은 땅에 뻗었

다.(莊排闥而出願之 雲外有天樂聲 光明屬地)

- 하루는 거기서 몸이 솟구쳐 오르더니 전신이 공중에 날아가서 간 바를 몰랐다.
(一日崑崙間透身而出 全身騰空而逝 莫知所至)

부득, 광덕, 관기의 성불 광경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았다. 몸이 글빛으로 채색되었거나 광명이 땅에 뻗었다거나 몸이 솟구쳐 올라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편이니 초월적 경이라 할 수 있다. 초월적 경이는 자오견성(自悟見性)의 징표라고나 할 수 있겠는데, 성불자가 천악, 광명, 비상(飛上)과 같이 특별히 장엄하고 숭고하게 제시되는 이유는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한 도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함이다. 성불 광경을 목격한 주제가 박박, 엄장, 도성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박박, 엄장, 도성에게는 이런 사건이 도부지 남득이 되지 않기에 그야말로 초월적 경이다. 현실적인 형식을 증시한 이들은 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해야 한다고만 여겼던 터이라 감각스런 사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초월적 경이로 그쳐 버리지 않은 것은 형식을 증시하던 도반이 크게 깨닫거나 성불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월적 경이는 미망을 걷어내고 우도가 실현되도록 유도하는 구실을 하는데, 이런 자취가 옥면과 귀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제시된다.

천악(天樂)이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비(婢)가 솟아 지붕을 뚫고 나가 서행하여 교외에 이르러 옥신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대광명을 발하면서 찰찰하 거 버리니 음악소리가 그치지 아니했다.(未幾天樂從西來 婢湧透屋樑而出 西行至郊外 捐骸變現眞身 坐蓮臺放大光明 緩緩而逝樂聲不撤空中)

옥면의 승천에 대한 부분이 여타의 설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세하고 장황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자는 귀진인 만큼, 귀진이 이렇게 놀랐다는 의미가 된다. 신분이 상층이라면 수행 능력도 비례하리라고 믿었던 귀진으로서 천하기 이를 게 없는 옥면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으니 놀라움이 클 수밖에 없다. 옥면이 승천하는 충격과 동시에 신분의 귀천이 얼마나 부질 없는 구별이며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성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절감했으니, 이 또한 초월적 경이로 그치지 않고 우도의 실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초월적 경이는 비합리적 사실인식에서 벗어난 오류가 아니라 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장치이다.

초월적 경이만 놓고 볼 때 구법설화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수이전」이나 고승전 계열의 자료들이 대부분 신이한 설화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유독 삼국유사에만 색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의식을 고려하게 되면 사경은 달라진다. 일연은 초월적 경이를 사실 기술의 중심 자리에 놓아둔 것이 아니고 초월적 경이를 이용해서 우도를 실현하는 바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삼국유사」에서 일반적으로 미신이라 할 사실을 “기이”(紀異), “진주”(神呪), “감통”(感通)이라는 항목⁽¹⁷⁾으로 고쳐 부르고 있는데, 초월적 경이를 이용해서 숨은 진실을 캐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일연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초월적 경이를 활용하고 있는 바, 우도가 초월적 경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뚜렷한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선승(禪僧)이었던 일연이 구법설화를 기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일연은 선종 산하의 가지산파(迦智山派)에 속했고 지눌에서 혜심(慧心)으로 이어지는 법통을 승계한 고승이었다⁽¹⁸⁾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명제를 근본 기치로 내걸고 좌선을 통해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행 단계를 세우거나 경전을 속독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으며, 글보다는 말로, 말보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도 일연은 설화를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백여 권의 책을 저술하기까지 했으니⁽¹⁹⁾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문자의 폐해를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했을 리는 없다.

일연은 고려조에서 가장 격심한 변동기에 살았다. 국내적으로는 무신들의 집권과 그 전횡에 탄항하는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이어지고,⁽²⁰⁾ 국외적으로는 몽고의 침입으로 민중들이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직접 안게 되어 고려 사회는 파탄할 대로 파탄해졌다. 민족적 수난이 계속되자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방책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찾아내고 자주적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대체로 불교계가 자주사상을 선도하고자 했고, 불교에서도 무신란 이후 활발하게 일어난 선종이 이런 임무를 담당하

(17) 「三國遺事」에 나오는 篇名이다.

(18) 金泰永, “一然의 生涯와 思想”, 「三國遺事의 文藝의 研究」(세문社, 1982), 5쪽 참조.

(19) 朝鮮總督府編, “麟角寺 普覺國師靜照塔碑”, 「朝鮮金石總覽」上(亞細亞文化社, 1976), 472쪽. “師之所著有話錄二卷 偈頌雜著三卷 其所編修有重編 曹洞五位二卷 祖圖二卷 大藏須知錄三卷 諸乘法數七卷 祖庭事苑三十卷 禪門拈頌事苑三十卷 等百餘卷”

(20) 公州 鳴鶴所의 民亂과 私奴 萬積의 亂이 대표적이다.

고자 한 바,⁽²¹⁾ 당시에 국존(國尊)의 위치에까지 오른 일연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다. 선승이면서도 설화를 따변하고 신본으로 차별되는 사회상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우도에 의해서만 이런 대립과 갈등이 화해·융합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따라서 일연이 제시한 우도는 사회교화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초월적 경이와 같은 충격적 방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연이 승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교화의 목적이 일반 대중에게 불심(佛心)을 신어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여지가 있다. 구법설화가 불교적 내용을 담았기에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전적으로 불교와 직결시켜서도 곤란하다. 일반 대중을 불교로 끌어들이려는 종교적 목적하에 설화를 기록하던 것도 동시에 혼란한 시대에 대처하는 사회윤리로서의 우도를 불교와 관련된 지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작가의 우도설법을 작품에 끌어들여 제재화되고 혼란한 세태를 우도의 실험으로 극복해 가는 양상으로 변용시킨 것은 인간생활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이 소중한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요컨대 일연은 당시 사회의 피폐함이 경제적·군사적인 면에서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심하다고 여겼기에, 우도의 형상화를 통해 삶의 진리를 찾아내고 실존윤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구법설화에 나타나는 우도가 작가의 설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것이 제재화되면서 나타나는 양상과 기능을 검토해 보았다.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승려라는 점에서 구법설화에 작가의 설법이 수용되어 있으리라 추정되지만 실제 분석해 본 결과 단순한 수용이 아님이 드러났다. 신본, 환경을 근거로 준별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독자로서 하여금 분명한 인식에 이르도록 한 다음, 우도의 실험을 통해 현상적인 대립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도의 가치를 입체적인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시대정신을 선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우도설법은 삼국유사에서만 수용된 것이 아니라 여타의 불교관계 자료에서도 두루 발견된다. 우도란 불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구법설화에는 등장

(21) 金相鉉,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研究』 20 (韓國史研究會, 1978), 23쪽.

인들이 구별을 목적으로 하되 수행능력이 아닌 신분에 의해 도반을 형성함으로써 우도의 작용이 애사롭지 않다.

둘째, 신분에 의한 층위는 상층인과 상층인, 하층인과 하층인, 상층인과 하층인으로 구분되는데 우도를 실현하는 양상이 각기 다르다. 상층인과 상층인인 경우 배경이 넓게 나타나며 우정이 숭고하기는 하되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층인과 하층인인 경우 배경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며 숭고함과 비속함이 뒤섞이며 서보가 의존적이고, 상층인과 하층인인 경우 배경이 아주 좁으며 숭고함과 비속함이 모두 나타나되 비속함이 사라져야만 숭고함이 나타날 수 있었다.

셋째, 인물과 배경의 관계가 대립적이다. 배경보다 인물이 우위에 서기도 하며 열세에 있기도 하며, 접지어는 배경이 인물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배경이 우위에 설 때는 인물이 하층에 속하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인데, 배경이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배경이 사회적 인식을 수용함으로써 인물과의 긴장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우도가 강하게 작용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요컨대 인물과 배경이 우도의 실현이라는 사건을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우도의 실현방향이 형식을 거부하는 쪽에서 고수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형식을 거부하는 쪽은 당대의 혼란한 현실을 벗어날 새로운 움직임에 대변한 것이라 보겠는데, 이것이 곧 작가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밀연은 우도의 실현과 초월적 경이를 밀접하게 연결시킨 바 초월적 경이가 우도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설정했다. 초월적 경이가 도반으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아 밀연은 충격적 방법에 의해 삶의 진리를 제시하려 했던 것 같다.